

- 주요 뉴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 연내 금리인하는 어려울 전망
 -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부채상한 확대 협상 결렬. 양측은 기존의 입장 반복
 -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전월비 둔화. 경기하락 가능성 등을 시사
 - 일본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시화되면 수익률곡선제어(YCC) 중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부채상한 확대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5%],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4월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감, 정부 채무불이행 우려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석유 및 가스 관련주 매도 증가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채상한 확대 협상 난항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고물가 지속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22.5원, -1.4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5/9일	5/8일	전일대비			5/9일	5/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19.2	4,138.1	-0.46%	국채 금리 10y	미국	3.52%	3.51%	1bp
	유럽	465.41	466.94	-0.33%		독일	2.35%	2.32%	3bp
	중국	3,357.7	3,395.0	-1.10%		영국	3.86%	휴장	7bp
	일본	29,243	28,950	1.01%		CDS 5y	한국	45bp	45bp
	한국	2,510.1	2,513.2	-0.13%	위험 지표	중국	76bp	75bp	1bp
	달러지수	101.64	101.38	0.26%		EMBI+	-	418	-
환율	유로화	1.0962	1.1004	-0.38%		VIX	17.71	16.98	4.30%
	엔화	135.23	135.10	-0.10%		WTI유	73.71	73.16	0.75%
	위안화	6.9204	6.9142	-0.09%	원자재	구리	388.9	391.8	-0.74%
	원화	1,323.9	1,321.4	-0.19%		금	2,034.6	2,021.2	0.6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 연내 금리인하는 어려울 전망

- 윌리엄스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발언. 다음 FOMC에서는 위원들이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금리 전망 관련하여 명확한 선제적 지침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은 너무 높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통화정책 관련 기본 시나리오에서 연내 금리인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연준의 제퍼슨 이사는 경제 성장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이에 향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 한편 은행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
- CME의 FedWatch Tool은 계속해서 현행 연방기금금리(5.00%~5.25%)가 7월까지 유지되지만, 9월부터는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이에 내년 11월에는 2.75%~3.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부채상한 확대 협상 결렬. 양측은 기존의 입장 반복

-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맥카시 하원의장 등과 만나 부채상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달에 실패.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 다만 시장에서도 이번 협상을 통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부채상한이 확대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은 6월초~8월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채무불이행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금융시장 역시 거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지적

■ BofA 설문조사, 고물가 및 고금리 불구하고 주택매입 의지는 여전

- 1000명의 잠재적 주택매입자 가운데 계획대로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를 기록. 시장여건 악화에도 주택매입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

■ ECB 슈나벨 이사와 독일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슈나벨 이사는 근원 인플레이션 수준이 하락할 때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 또한 역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발언
- 한편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는 ECB 금리인상이 7월에 끝날 것으로 확신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카지미르 총재 역시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 기간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전월비 둔화. 경기하락 가능성 등을 시사

-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5% 늘어 전월(14.8%) 대비 낮은 수준. 이는 최근 당국의 코로나 19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
- 같은 달 수입은 전년동월비 7.9% 줄어 3월(-1.4%)에 이어 감소세 지속.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축소될 전망(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기업 완다 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요 은행들과 대출 상환 연장 관련하여 대화를 진행. 구체적으로 당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

■ 일본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시화되면 수익률곡선제어(YCC) 중단

- 우에다 총재는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를 달성할 수 있다면 YCC를 중단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 아울러 금년 가을에는 비용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
- 3월 실질임금의 연간 상승률(-2.9%)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한편 명목 임금상승률(0.8%)은 정책 당국의 기대(3.0%)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소비자물가, 독일 4월 소비자물가, 일본 3월 경기선행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부채상한 확대 협상, 교착 상태 지속되며 투자자 우려 고조 - 블룸버그

(Let the Debt-Ceiling Game of Chicken Begin)

-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확대 합의가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아직까지 협상 관련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옐런 재무장관, 전 뉴욕 연준 총재 등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투자자 우려도 점점
- 재무부 사용 가능 예산 소진 시기(X-date)의 6/1일 도래 가능성 등으로 채권 매수-매도 스프레드 확대, 단기금리 급등과 같은 채무불이행 우려가 시장에 반영(UBS)
- 시장에서는 '11년 당시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었지만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양적긴축 등의 거시경제 여건과 은행권 불안 등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이해해야한다고 경고(Man Group)

■ SVB 사태의 전염 여파, 여타 유럽계 은행에는 제한적 - 블룸버그

(Why BNP, UniCredit and Other European Banks Aren't Stressed Out)

- SVB 사태 이후 UBS의 Credit Suisse 인수,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 증폭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외의 유럽계 은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은행들의 1/4분기 실적도 대부분 양호했고, 일부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 유럽계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로 ①중소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②미국 대비 견조한 예금 흐름 ③유럽 머니마켓펀드 시장의 미발달 및 국가별 독립적 은행시스템 존재 등이 거론
- 유럽계 은행은 ECB 저리대출 상환과 고물가 등으로 내년 이후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당분간 미국계 은행에 비해 양호한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의회, 중소형 은행 보호에 나설 필요 - Financial Times

(Congress must act to protect smaller banks from investor nerves)

- 금융시스템 불안에 따른 대형은행의 초대형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금흐름의 왜곡을 초래.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은행 유지가 중요. 구체적으로 무이자 예금 무제한 원금 보장제도(TAG: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의 재시행 고려가 가능
-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중소형 은행의 계좌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 TAG의 법률적 복원을 통한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지역은행의 원활한 중개기능 유도가 가능하도록 의회의 지원이 요구

■ 유럽의 가스 비축, 최근의 공급안정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 내재 - 블룸버그

(Europe Got Lucky With Gas. Better Not Tempt Fate Now)

-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2년 겨울 가스 에너지 위기에 직면. 반면, 온화한 기온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가능해져 수급 안정이 가능. 이에 최근 가스 비축량은 저장 가능 규모의 55%에 이르러 10년 평균(33%) 상회
- 유럽은 충분한 가스비축으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량은 상당히 위축. 해당 산업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23년 겨울을 앞두고 기존의 비축량 및 최근의 저가 공급 계약 등으로 가스 비축 목표(9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 러시아 침공사태 지속과 중국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비가 필요

■ 중국 당국의 미국 컨설팅 기업 급습, 자국 이익에 부정적 영향 예상 - Financial Times

(China's raids on foreign firms hurt its own interests)

- 최근 중국 경찰의 자국 내 미국 컨설팅 기업에 대한 급습은 당국의 반간첩법 확대 및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필요성 약화 등이 배경일 가능성. 그러나 미국 컨설팅 기업은 양국의 경제적 연계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 사태가 경제 세계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일 소지
-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기업의 중국 내 리스크 증폭 가능성을 경고. 외국기업은 '21년 중국의 수출에서 비중이 1/3에 이르며, 중국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해외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도 제공. 중국 당국은 해당 사태가 다국적기업과의 결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

■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정점 도달 판단은 시기상조 - 블룸버그

(Brace for a Bumpy Path to Interest-Rate Summit)

■ 미국 은행권의 안정,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 - 블룸버그

(Banking Is Stable? It's an Il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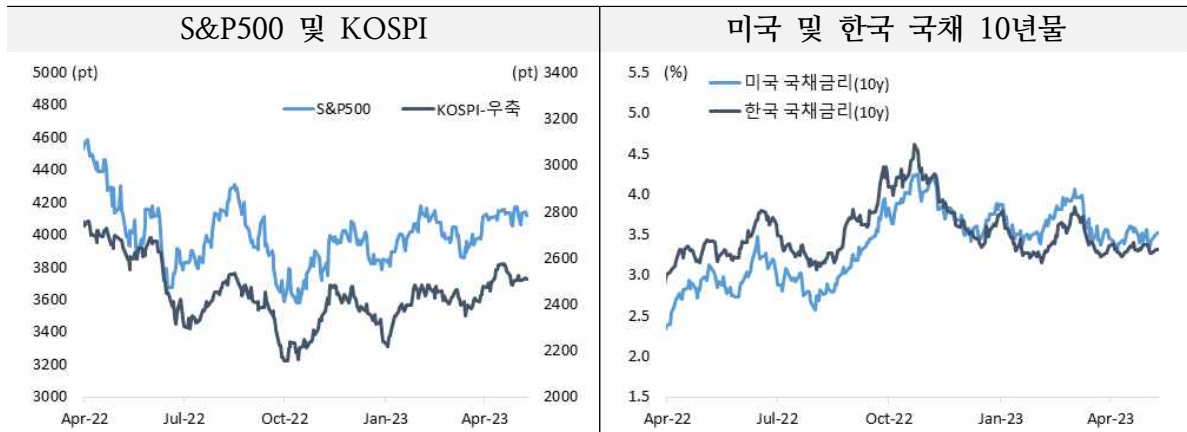
■ 미국의 양호한 소비, 잔여 초과 저축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US consumer is not ready to quit)

■ 중국의 무역지표 악화, 단기 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 증가로 연결 - 블룸버그

(China Imports Plunge, Export Growth Slows as Recovery Wa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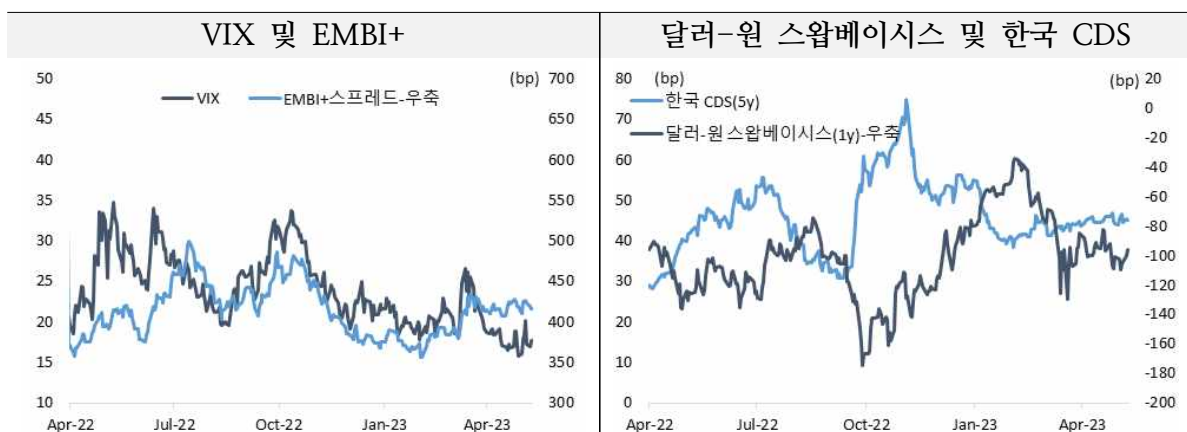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